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모교에서 정보·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가 시작됐다.

연수는 정보·컴퓨터 과목 교사가 아닌 경기도 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참여한 교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교사는 정보·컴퓨터 교사로서 수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듯.

이번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전에는 학기 중 유급휴직하고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듯하다.

기숙사 합숙까지 하시면서 뽀뽀한 수업 일정 따라가시는 선생님들이 그저 대단해 보일 따름이었다.

연수는 하계/동계 방학 기간과 학기 중 주말 집중이수제로 진행하는데, 나는 동계/학기 중 프로그래밍/데이터베이스 과목 실습 조교로 선발됐다.

실습 조교 선발 과정에서 일화가 하나 있다.

지원서를 내고 며칠 후 면접 시간표가 왔는데 내 이름이 없었다.

처음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 떨어졌다면 떨어진 사람한테 메일을 왜 보냈나, 혹시나 실수는 아닐까 싶어 문의를 해봤다.

알고 보니 담당 교수님께서 나는 따로 면접 없이 선발하셨다고 한다.

교수님 수업을 세 번 정도 듣고 교육원 쪽에서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하다 보니 교수님과 접하는 일이 많은데, 나름 괜찮게 이미지가 쌓였던 듯하다.

지원서 관련 수업 학점 쓰는 란에 어떻게든 가뭄에 콩 나듯 보이는 A 학점 과목들 교육학 과목까지 꾸역꾸역 찾아서 채워 넣었던 게 괜스레 무색해졌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프로그래밍 과목은 중간고사까지 끝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에 대략 4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되어 파이썬 자료형, 연산자, 제어문, 함수 등 적지 않은 내용을 다뤘다.

처음에는 연수 기간이 다소 짧다고 느껴졌는데, 이 정도 속도로 배워서 시험 통과하면 누구 가르쳐도 큰 문제 없겠다 싶었다.

4년 전 2019년 나는 메모장에 HTML 코드 작성해서 웹 브라우저에 실행시키면 뭔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파이썬이 무슨 원리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은 몰라도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적당히 잘 따라 하면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마냥 좋고 그랬다.

사실 여전히 그렇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둘 다 인지는 모르겠다.

처음 파이썬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 돌아오는 날카로운 답변이 무서웠다.

사람에게나 검색엔진에게나 책에게나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버둥대다가, 월드컵 개최 주기만큼 시간이 지나서야 어찌어찌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게 됐다.

실습 조교의 신분으로 현직 교사분들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좋은 경험이었다.

꾸역꾸역 F만 피해서 교생 나갔던 내가 감히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초심자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이썬 질문에 답변해 보는 경험은 향후 이들을 위한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끼게 했다.

파이썬 코드 작성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들여쓰기 문제인지, 함수 문제인지, 괄호 문제인지, Colab 자체 문제인지 거의 맞힐 수 있는 나 자신이 여전히 신기하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Toutes les grandes personnes ont d’abord été des enfants. (Mais peu d’entre elles s’en souviennent.).”*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中

나름 초심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애초에 그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초심자가 아니며, 초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 공감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는 있다.

언젠가 파이썬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글을 쓴다면, 최대한 다양한 초심자를 만나 조언을 구해야겠다.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상술하여 쉽게 쓰되, 가장 쉬워하는 사람을 위해 심화적인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알면 넘기고, 몰라도 넘기면 된다.

이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라 파이썬이 아닌 그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

조교 일하면서 진로 관련된 생각도 많이 들었다.

나중에 정보 교사가 될까?

사업가가 될까?

개발자가 될까?

지금처럼 적당히 프리터 느낌으로 먹고 살까?

지금도,

입시 때 진학할 학과를 고민했을 때도,

고2 때 문이과를 고민할 때도,

그 이전부터 나의 미래 희망 직업을 답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자신 있게 답해본 기억이 없다.

태어난 이래로 아직도,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다만 조금씩이나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인지하기 시작했고,

최대한 그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나름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아주 얄긴 하지만...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르게 풀이하면, 각각의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확률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다.

다만 가면 갈수록 등 따습고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는 진로의 확률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싶은 마음

이 아주 조금 들기는 하지만...

광장히 양자역학스럽지 않나?

참고로 양자역학 모른다.

미래 최고!



[사진 출처](#)

이번 주에는 프로그래밍, 다음 주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실습 조교로 수업에 들어간다.

내일은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좀 해둬야겠다.

이 글을 시작으로 미뤄뒀던 글쓰기, 아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사실 블로그에 포스팅이 멈춘 동안에도 스마트폰 메모장은 채워지고 있었다.

이걸 다듬고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가 너~무 귀찮은 이유로 근래 꾸준히 포스팅을 못했는데, 마음먹었을 때 최대한 해둬야겠다.